

단편소설

한밤중에 민서는

강애영

22:30

이 때쯤이면 주임은 말이 많아졌다. 주임은 변덕쟁이에 수다스러웠고 허언증까지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천장에 뚫린 어둑한 환풍구를 바라보며 달토끼가 보인다고 말했다. 에이, 뻥치지 마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민서는 꼭 참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러면 그는 더 신이 나서 플라네타의 유래에 대해 주절거렸다.

“암스트롱의 진짜 임무가 뭘지 알아? 그의 임무는 달토끼에게 피로회복제를 주고 오는 거였다. 안 믿긴다고? 믿어야 보여. 혼자서 밤에 공장을 지키다 보면 말이야 가끔씩 천장에 있는 환풍기가 멈추곤 해. 저어기 가운데 환풍기 사이를 잘 살펴봐. 글썽, 달토끼가 커다란 방아를 왼손에 쥐고서 오른손으로는 피로회복제를 마시고 있다니까. 피로할 땐 역시 박카스가 최고지. 언젠가는 TV에 달토끼가 모델로 나오게 될 거야. 우리처럼 이렇게 금형을 찍어내며 박카스를 선전하면서 박카스! 피곤할 땐 박카스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전설의 육토끼도 세대교체가 되는 거지. 앞으로는 슈퍼토끼가 달을 지키게 될 거야. 하나 더 마실래? 철야시간에는 두 개는 마셔야 졸리지 않아. 중독되면 어떻게 하나요? 졸려 죽는 것보단 낫지. 졸라맨 알지. 아, 졸리다. 졸리다 생각 다보면 졸라하고 발음이 안 될 때가 있어. 피곤하면 혀도 둔해지거든. 졸라맨도 그래서 탄생했을 걸.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림쟁이었을 거야. 마감은 압박했지 그림은 안 그려지지 애라 모르겠다. 막 끄적인 거야. 기운은 없고 졸리고 연필심은 툭툭 부러지고. 화가 나서 팔다리를 툭툭 꺾었을 걸? 그러면 죽는 거 아니냐고? 에이, 어린 거야? 순진한 거야? 그림인데 뭐 어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순 없잖아. 졸려 죽는 것보단 캐릭터가 대신 죽는 게 훨씬 낫지. 인간이 원래 잔인해. 괴롭히다 보니까 졸음이 싹 가신 거라. 난 남 안 된 일에 막 웃음이 나고 그런 적 없어? 쫓나 졸린다고 해 봤자 더 졸려. 따라해봐, 쫓나 졸려 쫓나맨. 웃기지? 안 웃겨? 그래, 그렇게 웃어가지. 그래야 철야작업을 할 수 있어. 암튼 박카스 하나 더 마시고 힘내자고!”

주임은 한입에 박카스를 털어 넣고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하이 토키야, 하고 손까지 흔들었다. 그는 불 때마다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특히 한밤중에는 더 그랬다. 아무리 살피도 천장에는 토끼는커녕 토끼 모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괜찮았다. 주임이 웃으면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웃고 나면 조금은 피로가 풀리기도 했으니까. 말이라는 게 참 이상했다. 자꾸 듣다보니 진짜 토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야밤에 달토끼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까지 했다. 하지만 그런 밤은 아주 잠깐이었다. 주임이 웃을 때는 토끼를 쳐다볼 때뿐이었다. 노후된 프레스기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고장이 났는데 하필이면 야밤에 그것도 단 둘이 있을 때 자주

이때쯤이면 주임은 말이 많아졌다.

주임은 변덕쟁이에 수다스러웠고 허언증까지 있었다.

그는 한밤중에 천장에 뚫린 어둑한 환풍구를 바라보며...

멈추었다. 그때마다 주임은 엉뚱하게도 민서에게 화풀이를 했다. 막 때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자꾸 이상한 말로 민서를 괴롭혔다.

“미친놈. 믿을 걸 믿으라지. 내가 그렇게 호구로 보여? 좇잖네. 어딜 간 거야? 금방 돌아온다며. 더러운 새끼야, 얼른 오지? 안 와? 좇잖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더럽게 지저분한 입으로 쪼아대니까 좋아? 쪼다새끼.”

민서는 시끄러운 기계음에 맞춰 실컷 욕을 하다가 아차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혼자 있으니까 좋네! 민서는 주임처럼 아무 말이나 중얼거렸지만 그것도 이내 시들해졌다. 한밤중에 넓은 공장을 혼자서 알하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쩐지 으스스한 게 어둠속에서 무언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아 민서는 일하는 도중에도 자꾸만 주변을 둘러본거였다.

23:15

민서가 작업대에 쌓인 물건을 한쪽으로 치우려고 몸을 돌린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려오더니 바닥이 흔들렸다. 지진이라도 난 줄 알고 두 손으로 민서는 겨우 단자함으로 다가갔다. 버튼을 눌러 단자함 뚜껑을 열자 킬커덕 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소음이 사라진 공장은 작은 소리도 크게 되돌려놓았다. 전원 스위치를 올렸다. 차단기는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두 번째 라인 중간 스위치가 말썽이



그림=조근호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20회 이상,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뉴욕아트엑스포 외 아트페어 다수참여 ▲한국미협 이사, 광주미협 부지회장, 대한민국 미술대전심사위원 역임

있던 게 생각나 민서는 첫 번째 라인 차단기만 올렸다. 전류가 흐르자 미묘한 전파음이 발생했다. 전원이 연결된 안쪽 기계에 전원등이 켜졌다. 밤에 친구도 없이 혼자서 떠도는 반딧불이 같다. 전등은 입구 쪽만 켜졌다. 어둠의 농도가 열어지자 시커먼 기계들이 점차 형체를 드러냈다.

민서는 귀신의 집이라도 들어선 듯 으스스한 기분이었다. 멈춘 기계를 작동시켜야 했지만 눈이 올라간 편지를 보니 더럭 겁부터 났다. 무심 편지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절공공이처럼 일시정지 상태로 허공에 떠있다. 금세라도 툭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아슬아

슬 바라보며 민서는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고서 중얼거렸다. 이대로 침대위로 이동했으면... 공중 부양이라도 하고 싶었다. 문득 낮에 휴게실에서 잠깐 본 잡지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느 포토그래퍼가 찍은 사진 속에서 젊은 남녀 두 명이 서로를 향해 훌쩍 뛰어오르고 있었다. 잡혀진 다리와 나는 듯한 팔과 서로를 향해 활짝 웃어 보이는 모습이 한 쌍의 새처럼 보였다. 그들은 허공을 나는 자유로운 새였다. 티치 타베우니에 있는 날짜변경선을 건너 뚫 뚫 모습이었다. 두 사람은 날짜 변경선을 건너 뚫 것이 아니라 오늘과 어제의 경계를 벗어난 것 같았다. 민서는 그곳에서 건너뛰면 무엇이 보이는지 궁금했다. 날짜 변경선은 런던 그리니치 천문대에 와 피치 타베우니 두 군데에 있다고 했다. 지구를 세로로 관통하면 두 곳은 직선을 이룬다고. 민서는 첫 번째 여행지를 티치 타베우니로 정했다. 두 번째는 북극으로 가 오로라를 구경하고 싶다. 가능할까?

어릴 때 민서는 꿈이 많았다. 얼른 커서 취직하는 게 목표였다. 돈을 받아 엄마 병원비를 내고, 나라 용돈도 주고, 여친도 사귀고, 조금씩 저축해서 차도 사고 노력만 하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민서는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다. 꿈은 이루기 어려운 거라는 걸 너무 일찍 알아버린 것이다. 곧 자정이 된다. 이쪽과 저쪽의 경계가 잇기는 하는지. 민서는 초를 재며 다가오는 생일을 혼자서 맞이한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성인이 되는 날, 바라는 것은 단지 하나 뿐이다. 작동을 멈춘 저 고집센 고장 난 프레스기가 무탈하게 돌아가길 원한다.

민서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을 알아버렸다.

엄마는 오후 다섯 시경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니 결국 구급차를 불렀다고 나라가 카톡으로 알려왔다. 이때 전부터 의사는 디스크 파열이라고 수술을 권했지만 엄마는 치료를 자꾸만 미루고 있었다.

오후! 엠아이이 짝아야 하는데 선남이래. 나라가 병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지만 민서는 답을 할 수가 없다. 사장은 이번 납품이 끝나면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민서는 디스크 파열이라고 수술을 권했지만 엄마는 치료를 자꾸만 미루고 있었다. 잠을 자고 싶지만 공기를 마치지 못하면 사장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퇴근 시간이 임박해서였다. 민서는 병원비를 말해보려고 적절한 타이밍을 살피고 있었다. 사장이 막 사무실에서 나설 때 주임이 한 말 앞서 사장에게 뛰어갔다. 두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가자 민서는 사장에게 어떻게 돈 이야기를 꺼낼지 혼자서 연습했다. 저 가볼 줄, 저, 엄마 병원비가 급해서 그러는데요. 저, 제 월급 밀린 거... 주임과 사장이 다시 나오자 민서는 사장에게 다가가 쭈뼛거렸다. 이번에는 사장이 선수를 쳤다.

“아, 허군. 저네는 이번 납품 마치면 곧바로 밀린 임금 해결해 줄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민서가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주임이 얼른 대답하라고 재근했다. 네. 민서가 마지못해 대답하자 주임은 저 혼자 신나서 사장의 뒤통수에 대고 구십도 인사를 했다. 그러더니 사장의 차가 공장 입구를 빠져나가자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어, 난데. 곧 갈게. 어, 어. 주임은 자신이 사장이나 된 듯이 전파기를 세우더니 민서의 어깨를 다독거리며 말했다.

“아야야!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힘들면 달

“내가 이상한 거라도 섞었던 말야?”

“아, 아닙니다. 가 감기가 와, 와서. 맛을 잘...”

“너어, 이이이 새끼, 사수를 못 믿고 의심해 해?”

을 쳐다봐. 달토끼는 방아 대신에 프레스기 편지를 들고 있어. 시절이 바뀌었으니 당연한 일이지. 사람들이 왜 달에 간 줄 알아요? 사실은 프레스기를 설치하려 간 거야. 슈퍼토끼를 만들었거든. 토끼한테 일거리 다 뺏기고 싶지 않으면 잘해.”

컷노래를 흥얼대며 나간 주임은 자정이 다 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기계가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해요?

민서는 주임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폰 화면만 뻥히 들여다본다. 평소 같으면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육부터 해댔겠지만 구석진 곳에서 밀린 잠이라도 자는지 답이 없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온다. 전원만 켜면 되는데. 겁쟁이군. 넌 이제 성인이야. 한 가정의 가장인데 엄마를 책임져야지. 누구야? 달토끼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어슴푸레한 어둠뿐이다. 민서는 앉았던 자리에서 발뚧 일어나 계기판 앞에 섰다. 후속, 숨을 삼킨 민서는 용기를 내 작동 버튼을 눌렀다. 툭툭 소리가 들렸을 뿐 기계는 꼼짝하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 민서는 다시 컨테이너 상자에 주재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머리를 기대고 깜짝 졸았다. 기뻐서 얼룩진 주황색 후드티에도 원래의 색을 잃은 청바지에도 아직 옛날 얼굴에도 깊숙이 노곤함이 배어있다. 왜, 전화했어? 민서는 기계가 멈췄다고 웅얼거렸다. 오 작동 센서를 꺼놓고 작동시키면 될 거야. 그래도 돼요? 잠에서 깬 민서가 발뚧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폰을 살렸지만 그대로였다. 민서는 계기판 앞 왼쪽에 있는 오작동 센서등을 껐다.

00:50

시작 버튼을 누르자 프레스기가 덜컹거리며 움직였다. 묵은 해소기침 같은 거친 소리였다. 공장에 다시 소음이 일었다. 절공공이가 내려와 툭툭하고

원단을 내리쳤다. 상판이 올라가고 하판에 물렸던 원단이 절단되어 나왔다. 민서는 생산품을 적재함 위로 쌓았다.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며 다음 원단을 밀어 넣었다. 악어처럼 아가리를 벌려 원단을 삼킨 프레스기가 생산품을 뱉어냈다. 민서는 생산품을 옮기느라 벌겋게 눈을 연신 깜빡이며 손을 놀렸다. 눈을 치떠도 자꾸만 눈꺼풀이 내려와 스크린 눈이 감겼다. 박카스라도 마셔야 했다? 생각해보니 오늘 밤에는 야식으로 나온 빵도 박카스도 없었다.

주임은 철야 때마다 박카스 두 개는 마셔야 졸리지 않는다고 했다. 피로회복제를 두세 병 마신 날 주

“내가 이상한 거라도 섞었던 말야?”

“아, 아닙니다. 가 감기가 와, 와서. 맛을 잘...”

“너어, 이이이 새끼, 사수를 못 믿고 의심해 해?”

임은 기분이 좋아보였다. 그렇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변덕이 심한 주임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어느 날, 민서는 박카스를 마시다 말고서 뚜껑을 닫았다. 뭐야, 왜 마시다 말아? 그게 아니라 맛이 좀. 민서는 말해놓고서 아차 싶었다. 심하게 구겨진 주임의 얼굴은 이미 별것에 달아오른 뒤였다.

“내가 이상한 거라도 섞었던 말야?”

“아, 아입니다. 가 감기가 와, 와서. 맛을 잘...”

“너어, 이이이 새끼, 사수를 못 믿고 의심해 해? 무조건 믿어라지. 아아아 안 그래? 미미미 믿어, 안 믿어?”

주

임은 화가 나면 말을 더듬었다. 차라리 때리면 맞는 것이 나을 것 같았지만 주임은 때리지도 않으면서 폭언을 일삼았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냥 기분이 풀릴 때까지 거침이 없었다.

“와아아아아, 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가아아아아. 어쭈어어어 안 가? 어어어 안 와? 자식 니가 그그그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야. 어어어 아버지도 없지? 어어어 엄마도 병어리고.”

주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말대꾸는 절대 금지였다. 한 마디 했다가 백 마디가 되돌아왔다. 차라리 몇 대 얻어터지고 말지. 그럴 때마다 민서는 최면을 걸었다. 나는 민서가 아니다. 민서의 그림자다. 그림자가 밝힌다고 영혼이 상할 리가 없다. 민서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나면 정말 그런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혼자가 되면 가슴 한쪽이 당기고 걸렸다.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그럴 땐 게임을 했다. 심즈에서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여친도 만나고 사랑도 하고나면 기분이 좋아졌다. 공장에 들어와서는 게임할 시간도 없었지만 일단 의욕이 없었다.

